

신안군, 팔금면에 ‘퍼플 바나나 농장’ 문 열어

청년인구 유입 목표...중장기 임대
6006㎡ 규모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
전문가 구성 민간 협동조합 참여
재배 전과정 컨설팅·가공상품 개발

신안군이 지난 9일 팔금면에서 ‘퍼플 바나나 농장’ 문을 열었다. 퍼플 바나나 농장은 청장년층 인구 유입 목표로 일자리 창출형 중장기 임대농장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3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에 문을 연 퍼플 바나나 농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투입돼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난방 시설 및 자동 양액설비 등을 갖춘 6006㎡ 규모의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로 지어졌다.

팔금면 퍼플 바나나 농장은 청년농업인들 대상의 단기 임차 운영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청장년층 인구 유입과 일자



지난 9일 신안군이 팔금면에서 ‘퍼플 바나나 농장’ 문을 열었다.

신안군 제공

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중장기 임대농장이다.

퍼플 바나나 농장은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바나나 재배생산과 유통 마케팅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안섬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일수)이 참여하고 있다.

신안섬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고품

질 바나나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부터 우량묘 증식을 위한 조직배양묘 생산 기술 등 재배 전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체험 홍보와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바나나 공동 브랜드 및 가공상품 개발로 바나나를 활용한 6차 산업화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에 문을 연 퍼플 바나나 농장은 신안군 인구 유입 정책 중 농업분야에서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 정책과 조례 제정 등 청장년층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완도군, 소안 횡간마을 LPG 공급 가스보일러 등 설치

완도군에 인구 100명이 거주하는 소안면 횡간마을에도 LPG 시설이 구축됐다. 완도군은 지난 8일 횡간마을에서 LPG 시설 구축 사업 준공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섬마을 LPG 시설 구축 사업’은 연료 공급이 취약한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LPG 저장 탱크와 배관망 및 가스보일러, 안전장치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1억9000만원을 투입해 LPG 저장 탱크 2.5톤 2기, 0.5톤 5기와 배관망 2.5km, 세대별 금속 배관, 가스보일러, 가스 안전장치 등을 설치해 지난 9월부터 87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LPG 시설 구축으로 주민들이 취사와 난방 연료를 개별적으로 구입 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LPG 저장 탱크와 배관망을 통해 상시 가스 공급이 가능해졌다. 기존 연료에 비해 40% 이상의 연료비 절감과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연료 사용 환경이 마련됐다.

완도=정태영 기자

해남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65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해남군은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2024~2025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 백신(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이 사용된다.

접종자가 물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70~74세는 15일, 65~69세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할 수 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관내 26개소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접종은 연 1회 정기 접종으로 65세 이상 군민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군 무안을 우리동네복지기동대원들이 안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무안을 복지기동대, 거동 불편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무안군 무안을(읍장 이숙아)이 무안을 우리동네복지기동대와 함께 지난 8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13일 무안군에 따르면 대상가구는 노

부부가 살고 있는 집으로 보일러 옆에 장판 일부가 까맣게 그을려 있고 열통과 곰팡이로 벽지도 훼손이 심했지만 거동이 매우 불편한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보살피느라 노후 도배장판을 교체하지 못하

고 있었다.

이에 복지기동대원들은 도배장판을 새로 교체하고 주변 환경 정리를 하며 이웃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복지기동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노후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해남군,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실시

소, 돼지, 염소 등 사육농가

해남군은 10월 한 달 동안 소, 돼지, 염소에 대한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접종은 매년 2회 실시되는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일제접종 일정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우제류(발굽이 짝수인 동물)를 사육하고 있는 1462농가, 20만1512마리이다.

예방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나 아픈 소에 대해서는 접종이 유예된다.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사를 포함한 구제역 백신접종반을 편성하여 접종을 지원하며 소 50

두, 염소 300두 이상 농가 및 돼지 전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농장주는 반드시 각 읍·면에 신고하여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 감염되는 구제역은 전파력이 매우 높은 전염병으로 치사율 5~75%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주 증상은 입술, 혀, 잇몸, 젖꼭지, 발굽 사이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게 된다.

전남도 차원에서 일제 접종이 완료후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생성 기준치 미만(소 80%, 돼지 번식돈 60%, 염소 60%)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율이 개선될 때까지 4주간격으로 반복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기준치 이하 항체율이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축산 관련 모든 보조사업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구제역 사전예방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축산인들 스스로 축사내외부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군, 세계음악극 페스티벌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무안군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무안승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2024 세계음악극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24 세계음악극 페스티벌은 무안 출신인 국창 ‘강용환’ 선생의 정신을 선양하고 전통예술 창극의 대중화·세계화로 무안을 창극 문화예술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축제는 △종합창작극인 개막공연 ‘미래를 위한 기억’ △무안 꿈의 오케스트라와 연희팀의 협업 공연 △MZ세대 신진 예술인(단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작하는 예술가들’의 8작품 △해외초청공연 ‘중국 경극’, ‘몽골 전통음악극’, ‘스페인 플라멩코’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폐막공연 ‘보통사람들’ 등 다양한 음악극이 열린다.

신진예술인(단체)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진예술작품의 신선함과 해외 공연으로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음악극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밖에 국악 체험, 악기 배우기, 세계문화 체험, 세계음식 푸드트럭, 플르마켓(플리마켓+프리마켓) 등이 열려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25일까지 하반기 장학생 신청 신안군장학재단

(재)신안군장학재단은 오는 25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안군 인재 육성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선발 분야는 3개 분야 9종이다. 9종은 △우수 장학생 △대학생 생활비 △내고 장학금 진학 △일반 저소득 △만학도 △다문화가정 △낙도 학생 △위기가정 △아가 및 저소득 장학생을 선발해 총 3억 8940만원을 지원한다.

재단은 신안군의 미래 인재 발굴을 2024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시부터 대학생 장학금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했다.

먼저 대학생 장학금 지원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대학생 주소지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대학생 본인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신안군에 주소가 있어야 했으나 ‘6개월 이상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대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의 주소지가 공고일 기준 신안군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보호자 주소지 기준은 기존과 같다.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이 임시 근로를 학교생활과 병행함으로써 학업에 열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등록금성 학비 장학금과 별도로 학업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생 생활비 지원 장학금’을 신설해 지원하고 성적 우수 대학생 장학 분야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자는 국가 장학금 등을 비롯해 타 기관 장학금 신청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타 장학금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제출 시 재단 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다.

신안군 인재 육성 장학금은 장학금 신청 유형에 따라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누리집(고시·공고)과 (재)신안군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shinan.go.kr/home/janghak>)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